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임박

법무부 오는 가을 국회에 법안 제출기로

한국기독교교도소 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운)는 7월 26일(월) 임시임원회를 갖고 법무부로부터 민영교도소법률안을 통보받고 이를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가을 국회에 법률 제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2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교도소 선교대회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도와 연구 및 각방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어 관계자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열매를 보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당국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믿고 크게 기뻐하며 기도에도 동참해 준 성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이번 주 청년부수련회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2일(월) - 5일(목) 3박 4일간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추양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관계와 비전의 회복”을 소주제로 ① 하나님과 나와 관계회복 ② 이웃과 나와 관계회복 ③ 나의 비전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강사는 이종운 목사, 고경선 목사, 임동진 목사, 이순환 목사이며 부흥집회, 조별기도회, 특강 등과 비전찾기, 성경퀴즈 및 성가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1일 오후 10시이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에 거는 기대

지금까지는 범죄자를 다루는 일은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고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범죄자 교정사업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듭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권 모독적인 수사관행 등) 공안당국도 범죄문제에 소수무책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 특별주의 형사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현행 교정교화프로그램이 종교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교화활동으로는 재소자의 심성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몇몇 기독교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 성경적인 원칙에 의거한 형사정책이 모색되었고 이를 실천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기독교교도소는 영적으로 비탈어진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도소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종교적 일관성이 결여된 현행 프로그램을 체계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며 타종교·일반 교도소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재소자 교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선교에도 지대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독교교도소 설립이 법제화되고 범죄 문제에 대한 기독교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된다면 우리가 오래 기도해 오던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범죄자 교정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농촌전도대 조직 완료

충남 금산 마장교회로 파송되어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3박 4일간 전도활동을 펴게 될 농촌전도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도: 이성득
- 진행: 정운돈 고경선 정대일 조대영 정성국
- 대장: 최종시 부대장: 왕경래
- 위원: 박철훈 오정수 김태기 김영준 김상철 하영수
- 총무: 이상호 서기: 김예환
- 전도: 이관규 윤찬오 최용걸 서준식 이남성 장양일 김규태 이순덕 전용순 최영란 강애자
- 재행: 이승우 오유식 이인근 정동호 엄용대 이상호
- 교육: 신용식 정정숙 황유석 박경원 조선섭 이태조
- 오혜진 이보람 박윤정 이은하 최주미
- 찬양: 권윤경 최미연
- 홍보·행사: 오광환 안재희 박정임 최지혜
- 의료: 김정임 김영숙 김옥환 윤지연 우서운
- 취사: 김예환 전춘자 최길옥 이자혁 김성일 심상필
- 이·미용: 김명숙 박숙
- 재정: 왕경래

탈북자 위한 서명운동 7월 현황

7월 한 달 동안 66,568명의 서명을 받아 7월 25일 현재 145,904명(전체 목표의 약 73%)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교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은 것이다. 8교구는 7월 31일(토) 교구 식구 15명이 노원지하철 역에서 전도를 겸한 서명운동을 폈다. 또한 1·2교구는 8월 21일(토) 강남역을

중심으로 2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펼 예정이다. 본부에서는 이 운동의 국제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가의 서명 참여가 필요를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자녀나 친지의 참여를 위해 영문 서명용지를 본부에 비치하고 있다.

▼ 7월 중 팀별 서명수취인 수 (7월 25일 현재)

팀	서명수취인총수	7월수취인수	팀	서명수취인총수	7월수취인수
1교구	22,783명 (10,665명)		10교구	668명 (548명)	
2교구	1,675명 (+1,620명)		11교구	15,220명 (7,200명)	
3교구	2,688명 (2,485명)		12교구	699명 (449명)	
4교구	7,599명 (5,162명)		초등부	373명 (343명)	
5교구	13,710명 (10,230명)		중등부	1,178명 (448명)	
6교구	1,726명 (150명)		고등부	716명 (510명)	
7교구	3,160명 (3,070명)		대학·창년부	12,328명 (120명)	
8교구	12,778명 (6,921명)		기 타	48,000명 (16,254명)	
9교구	603명 (393명)		총 계	145,904명 (66,568명)	

이사야 강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이사야 25장 9 - 12절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시대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기다리는 그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1.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기쁨이 주어진다

기다리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9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곧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1절)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배에 경건이 생기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며 최고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환희와 찬송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것은 오래 전 하나님 자신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믿는 마음입니다.

2. 메시아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여호와의 손(10절)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

하며 이 산은 시온산 곧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을 먼저 꺾으시어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10절). 모압은 끝까지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압은 우

에 떨어뜨려 진토에 미치게 행하실 것입니다(12절). 전능자 앞에서 난공불락이란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망시킵니다.

모압의 파멸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모형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힐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사 25:9 - 12)



이종운 목사

상승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은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피난처인 소알에 이르러 굴에 숨어 피난살이를 할 때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낳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며 그 후손이 모압족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평생 미워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불의의 씨였습니다.

모압은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10절).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들은 결국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사 16:6)

그들이 손을 벌려 얻은 재물이 많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시므로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11절).

모압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고 요새를 만들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요새를 헐고 땅

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메시아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보호받는 방법이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는 성도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시온 곧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누르시고 밟아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와 보급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믿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수련회를 마치고(중등부·고등부)

촛불장례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종말론·창조론으로 주님을 재발견하고

중등부 학생들에게 들은 소감 한마디

7월 22일 밤 10시부터 가졌던 '촛불장례식' 시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도사님의 말씀. 모두 유서를 썼다.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제출한 유서를 차례대로 읽으셨다. 2명씩 짝을 지어 초에 불을 붙이고 서로에게 빵과 포도즙을 먹여 주었다.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참 인상 깊었다. (1학년 전아람)

내가 궁금해 하던 종말에 대해 속 시원히 알 수 있어서 기뻐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엔 확신이 없었던 영생에 대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1학년 김초롱)

이종윤 목사님의 종말에 관한 특강을 듣고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이상진 목사님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강의 하셨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1학년 오동준)

제일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경배와 찬양' 시간.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밀레니엄리서치'였다. 그동안 관심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렸다. (2학년 강신혜)

색다른 수련회였다. 지금까지는 주님께만 부르짖었으나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아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이종윤 목사님의 종말론과 이상진 목사님의 창조론 진화론 강의는 내 궁금증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또 정운돈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2학년 임중현)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적인 줄 알고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신뢰했었는데 바뀌었다. 진화론의 모순을 알고 나니 더욱 창조론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찬양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다. 선생님들도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다. (3학년 이만웅)

이번 수련회,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시간과 순간이 한 번 가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전도사님 말씀대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

니까 기분이 좋았다. 촛불장례식 때 유서를 쓰면서도 모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게 기뻐다. 이번 수련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안에 거하기 바란다. (3학년 박재원)

영원히 잊지 못할 수련회

강혜주(고등부)

7월 26일(월) - 28일(수)까지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고등부수련회를 다녀왔다. 난 사실 이번 수련회도 그냥 놀다오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전 주에도 갈까말까 하다가 안가면 그냥 후회가 될까 봐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이 아주 많이 변하게 되었다.

우선 수련회 일정에 놀 시간이 전혀 없었다. 장소조차도 그랬다. 산중턱에 있었고 공간도 좁고 화장실도 옛날식이고... 그러나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둘째날 들은 이종윤 목사님의 강의는 아직도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었다. 목사님의 강의는 지금의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하였고 또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셨다. 강의를 들으며 난 지금까지 그냥 가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는 생각과 이젠 참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저녁 부흥회는 은혜로움 그 자체였다. 박귀환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려운 성경을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다. 둘째날 밤 부흥회 후 기도 시간에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찾았고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이젠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 은혜가 넘친 시간이었다.

'천로역정'은 아주 힘들었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프로그램이었다. 그밖에도 모닝데이트, 서울 파워 등 많은 일정이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내게 아주 소중한게 기억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께서 우리 아픈 곳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부 전체와 좀더 가까워지고 방황하던 내 마음에 갈피가 잡혔다. 이젠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한다.

모기에게 많이 물려 고생은 좀 했지만 이번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 내게 있어 창조론 진화론 강의는 정말 재미있었다. 전날 밤잠을 자지 않고 꼬박 새버린 나는 실은 이 시간에 즐릴 줄 알았다. 그러나 재미있는 강의였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때껏 창조론은 과학 원리면에서 진화론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강의를 듣고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3학년 오주명)

고등부 수련회는 내 일생에 내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최현인(집사, 고등부 학부모)

서울교회 고등부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수련회 때가 되면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저는 마음 속에 갈등을 느끼곤 합니다. 으레히 학교 보충수업과 맞물리는 것도 괴롭고(학교선생님은 절대 출석을 강요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성적도 염려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행사에 결석을 시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수련회에 안 보낸다면 우리 양언이가 수련회 생각만 하며 우울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 되고 보니 더욱 마음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월요일에 출발인데 주일 낮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수련회에 꼭 보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정운돈 목사님께서 부르시길래 다락방 일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양언이 수련회 가지요?"라고 하시는 말씀에 "예"하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양언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감히 짐작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어미가 가로 막고 썼는 것을 제하시고 미련한 어미를 일깨워주시까지 수련회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학교 보충수업을 염려한 것도 믿음이 없었는 나의 기우였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고등부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우리 양언이를 귀빈(VIP) 대접 해주었습니다. <4면에 계속>

●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① ●

조만식 장로를 찾습니다

김광신 (장로, 12교구)

“늦게 오셔서 어딜 앉으십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뒤에 서 계십시오.”

호통치는 당회장 목사의 눈빛에 꺾박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 계셔야 했던 조만식 장로.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께 앉으려 절하며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조만식 장로는 교육자였으며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로 한국 근대사의 빛나는 지도자였다. 그가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자기를 향한 조국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8월은 조국의 해방을 말하는 달이고 올해는 8·15 광복 54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전체는 선진들이 이룩해 놓은 광복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게을렀고 무책임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구석 구석을 분열과 부패와 퇴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자신이 불행의 한 가운데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그 불행을 물려주어야 할 지탄의 대상들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가 '바담풍' 하면서 자식에게는 절대로 '바담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하라고 수십

번 가르치고 옥박지르고 타일러보지만 아버지의 허짧은 발음에서 '바람풍' 소리 대신 계속 '바담풍' 발음만 들리니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람풍' 할 수 있단 말인가.

기성세대는 어차피 마감을 향해 줄달음치는 시간들이기에 억울해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젊은이들에게는 엉망진창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어 체계의 구경거리가 되고 푸대접받는 나라 백성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죄를 묻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어리석은 일을 벗어 버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에게 엄중하고 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령충만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모든 악함과 어지러움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권리가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의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 귀한 부르짖음 운동으로 인해 지도자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위기 대신 번영과 평

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사건은 그런 지도자, 조만식 장로를 찾아나서는 일이다. 그리하여 정치가도, 경제인도, 교육자도 애국 애족했던 조만식 장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란과 암흑의 극치는 새벽시간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것임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거니와 지금이 바로 새벽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소리 높여 새벽 종을 울려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고 주체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 밖에 없다. 아무리 지금의 교회가 조롱거리의 주범일지라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역사 창조의 깃발을 들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조만식 장로를 찾는 일에 앞장을 서고 책임을 지기로 다짐해야 한다.

유관순 누나의 만세 소리가 처음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듯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생명력을 얻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양자강이 범람하듯 전 국토로 번질 것이고 거짓 지도자들은 숨을 곳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새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8·15 광복보다 더 감격할 수 있는 새 천년의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 평화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약속되어 질 것이다.

<3면에서 계속>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에 태우러 오셨고 새벽 6시엔 어김없이 태워다 주셔서 낮에는 학교에, 밤에는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 가족은 자자 내가 선생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반문해 보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헌신하신 고등부 선생님 모두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갈을 길이 없지만 선생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양언이가 자라서 이 다음에 교회 선생님이 되어 그 사랑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일(월) 북한난민보호 UN청원운동 지역협의회 회장 추대식을 갖는다. 5일(목)엔 서울여대 이사회, 기독교대학협의회에 참여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하영수 장로·박정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
- * 모세선교회는 2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청년부수련회를 위해
2. 충남 금산에 파송될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